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작성 박신애(대전전민중학교 국어 교사)



『오늘은 내가 너에게 갈게』

이수연 장편소설

주제어: 우정, 희생, 진로, 상실, 성장

1 책 소개

평범한 중학생이던 시이는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은 뒤 그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엄마는 처음 보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달려오는 차 앞으로 몸을 던졌다. 시이는 그런 엄마를 이해할 수 없다. 엄마는 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는 생각하지 않고 모르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을까?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어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고등학교에 지원한 시이. 그런데 그곳에서 엄마가 구하려 했던 아이의 엄마, 은지를 같은 반 학생으로 만난다.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를 건네는 그녀를 시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미혼모였던 스물다섯 살 은지는 왜 학교로 돌아왔을까? 시이와 은지의 위태로운 만남은 어떻게 전개될까?

2 학습 목표

이 소설은 인물의 섬세한 감정 변화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야기의 흐름에 따른 인물의 감정 변화를 이해하고, 인물의 행동에 공감 또는 비판하며 작품의 내용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성장소설로서 등장인물의 마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며, 자신의 상황과 관련지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나아가 진로 문제를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이해한 후에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글쓰기로 나아갈 수 있다.

- 작품 속 이야기의 흐름과 등장인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을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 이야기의 관점을 바꾸어 창의적 글쓰기를 할 수 있다.

3

차시별 수업 계획

차시	단계	활동 주제	활동 내용
1	읽기 전	책, 만나서 반가워	· 제목과 표지를 보고 내용 상상하기 · 소중한 것을 떠나보낸 경험과 그때의 마음 떠올려 보기
2~3	읽기 중	이야기에 푹 빠져들어	주요 사건 및 소재 파악하기
4		너는 어떤 사람이니?	등장인물 탐구하기
5	읽기 후	너를 이해해 네게 공감해	인물의 행동에 공감 또는 비판하기
6		미움은 이제 안녕	나의 감정 돌아보고 정화하기
7		나는 무엇을 하지?	나의 진로 고민 정리하기
8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줘	다른 인물의 관점에서 시점 바꾸어 서술하기

1. 제목과 표지를 보고 내용 상상하기

『오늘은 내가 너에게 갈게』의 제목과 표지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 것 같나요? 책에 대한 첫인상과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어떻게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2. 소중한 것을 떠나보낸 경험과 그때의 마음 떠올려 보기

여러분은 소중한 것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나요? 물건이든 반려동물이든 사람이든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것을 떠나보낸 일은 큰 충격이자 슬픔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 과정을 겪어낸 여러분을 꼭 안아주고 싶어요. 소중한 것을 떠나보낸 기억을 떠올리며 다음 물음에 답해보세요.

· 소중한 것을 떠나보내거나 잃었던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 그때 나의 감정은 어땠나요? 나는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하며 그 시기를 보냈나요?

· 내 친구가 소중한 것을 떠나보내거나 잃은 상황이라면 나는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1. 『오늘은 내가 너에게 같게』에 폭 빠질 준비가 되었나요?

책을 읽어가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주요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봅시다.

1) 시이와 은지, 처음 마주하다

- 시이와 은지가 서로를 처음 본 순간은 언제였으며, 어떤 일 때문이었나요?
그 일은 두 사람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서로를 처음 본 순간

그 일로 인해 시이는...

그 일로 인해 은지는...

2) 시이와 은지, 다시 마주하다

- 시이와 은지는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되나요?
다시 마주한 시이와 은지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3) 시이와 은지, 열일곱과 스물다섯의 친구

- 시이와 은지는 점차 가까워지다가도 멀어지고 또다시 가까워지며 점차 친구가 되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둘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2. 『오늘은 내가 너에게 같게』에는 눈여겨볼 만한 몇 가지 소재가 등장합니다. 이 소재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1) 시이의 교복 단추

오늘 아침은 첫 단추에 집중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맨 위에서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단추를 잠갔다. 하지만 단추를 다 끼워도 구멍이 하나 남았다. 다시 첫 단추부터……. 아까와 마찬가지로 남겨진 구멍 하나. 마지막 단추가 떨어진 걸까? 아니면 구멍이 하나 잘못 뚫린 걸까? 다 잠그지 못한 와이셔츠를 치마 안으로 옥여넣었다.

(22~23쪽)

“올해 셔츠가 불량이라 재주문 들어갔잖아. 희망자에 한해서 교환해 준다고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 못 봤나 보구나. 나는 번거로워서 교환 안 했거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나온 거라고?”

(208쪽)

2) 헤이즐넛 커피

시간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향기가 있다. 처음 그 향을 만났을 때를 떠올리면 오래된 난로에 그을린 의자의 까슬함이 느껴진다. 그때 엄마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달콤하고 고소한 향기가 사방에 가득했고, 나는 그 향에 정신을 빼앗겼다.

...(중략)...

“헤이즐넛 커피야.”

“커피?”

“커피콩을 따서 말리고 볶은 다음에 갈아. 거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차처럼 우려내는 거야. 그리고 헤이즐넛 시럽을 넣는 거지.”

“헤이즐넛이 뭔데?”

...(중략)...

“헤이즐넛이야.”

그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 그녀는 컵에 커피를 담아 태연스럽게 내밀었다.

(48~49쪽)

3) 계단

가로등 아래 활짝 핀 개나리와 곧 터질 것 같은 철쭉 몽우리가 지겨워질 때까지 걸었다. 골목은 건물을 피해 갈라진 듯 구불구불했다. 선선한 바람에 힘들지 않았으나 곧 가파른 계단이 눈앞에 나타났다.

“이 계단… 다 올라야 되는 거야?”

가파른 계단은 안전을 위해 손잡이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다. 계단 사이는 빌라로 빼곡하게 막혀 있어 빠져나갈 샅길도 보이지 않았다.

“응. 저 위까지만 올라가면 금방이야.”

“매일 이 계단을 오르내린다고?”

“살다 보면 익숙해져.”

(102~103쪽)

이내 길고 좁은 계단이 눈앞에 드러난다. 고개를 들고 그 끝을 바라본다. 계단 위로 해가 저물고 있다. 붉은색 노을이 점점 어둠을 향해간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한참 숨을 고르고 한 걸음 더 내디딘다.

하나, 둘, 셋…….

…(중략)…

계단을 오르는 걸음이 천천히 느려진다. 숨이 차오르다 못해 힘이 풀린다.

…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174~175쪽)

이 소설에는 주인공인 시이와 은지 외에도 내용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작품 속 등장인물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작품 속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내용까지 모두 정리해 봅시다.

1. 등장인물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정리해 봅시다.

인물	기본 정보(나이, 직업, 외형 등)
시이	
은지	
시이 엄마	
시이 아빠	
카페 사장님	
그밖에 기억에 남는 인물	

**2.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 같은 책 속 구절을 근거로
인물의 성격과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인물	성격과 특징	근거가 되는 책 속 구절
시이		
은지		
시이 엄마		
시이 아빠		
카페 사장님		
그밖에 기억에 남는 인물		

이 작품에서 가장 공감이 되는 인물과 그렇지 않은 인물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 인물에게서 공감하는 부분과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말해봅시다. 그 인물에게 나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공감되는 인물	
공감되는 말 또는 행동 (쪽)	
그렇게 생각한 이유	
너에게 건네는 공감의 말	

공감되지 않는 인물	
공감되지 않는 말 또는 행동 (쪽)	
그렇게 생각한 이유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건네는 말	

엄마의 죽음 이후, 시이의 마음에는 때때로 미움이 튀어 오릅니다. 여기저기에 튀어 오르던 미움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변화합니다. 하나뿐인 가족인 윤월을 잃고 은지는 무너져 내립니다. 울음을 토해낼 수밖에 없던 슬픔도 차츰 변화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있다’는 은지의 말은 그저 흐르는 시간 때문이 아닌, 그 시간 안에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미움이 튀어 올랐거나 슬픔이 솟구쳤던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미움과 슬픔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내 곁에 함께한 누군가의 얼굴도 떠올려 봅시다. 그때의 감정이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전한가요, 아니면 다른 감정으로 변했나요?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에게 말을 걸어 준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시이는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엄마, 아빠, 선생님께 합니다. 하지만 정작 시이는 학교를 그만두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지요. 만일 시이가 나의 친한 친구라면, 나는 시이에게 뭐라고 조언해 줄 수 있을까요?

시이는 방황하고 있지만 또 다른 모습의 인물들도 있습니다. 시이 엄마는 포기했지만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고, 은지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카페 사장님은 꿈꾸던 삶을 카페 씬표에서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꿈이 있다면 그 꿈을 가지게 된 계기와 앞으로 하면 좋을 일을 정리해 봅시다.

아직 꿈이 없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쓰고, 지금 상황에서 더 나아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 봅시다.

이 소설은 전체적으로 시이의 관점에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시이와 마주하던 다른 이의 관점에서 세상의 하루하루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을까요? 소설 속 한 장면을 골라 다른 인물의 시점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로 바꾸어 써 봅시다.

내가 고른 장면: ()쪽 ()줄 ~ ()쪽 ()줄

이야기의 서술자: